

보도 일시	즉 시	배포 일시	2022. 6. 9.(목) 14:00	
담당 부서	전주기상지청	책임자	과 장	함태진 (063-249-3220)
<총괄>	기후서비스과	담당자	주무관	백승우 (063-249-3233)
<공동>	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	책임자	소 장	허태영 (063-290-5430)
	수목원팀	담당자	팀 장	조성중 (063-290-5432)

날씨와 자연이 빚어낸 조화와 아름다움 「제39회 기상·기후사진전」 개최

- 전주기상지청(지청장 이용섭)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(소장 허태영)와 함께 「제39회 기상·기후사진전」을 6월 10일(금) ~ 12(일)까지 3일간 전라북도 대야수목원에서 개최한다.
- 이번 전시회에는 ‘제39회 기상기후 사진·영상 공모전’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주형씨의 지난해 8월 서울 도심 일부 지역에만 비가 쏟아지는 순간을 담은 <국지성 호우>와 성산일출봉 근처 차 안에서 번개를 촬영한 <성산 일출봉에 구름, 번개>(금상/유수기), 김제 벽골제 부근 상공의 회오리 구름 기둥을 포착한 <용오름 현상>(은상/김용천), 4월 초 봄날 아침에 서리 맞은 꽃의 모습을 담은 <시련 속의 아름다운 할미꽃>(은상/김영곤) 등 수상작 37점이 소개된다.
- 향후, 순창군에 위치한 전라북도산림박물관(7.4.(월)~17.(일))과 임실군 옥정호 일원(8월), 완주군 산속등대미술관(10월)에서도 순회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.
- 이용섭 전주기상지청장은 “신비로운 자연의 기상현상 사진을 통해 기상·기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, 기후변화 위기 상황을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.” 라고 밝혔다.

※ 붙임 「제39회 기상·기후사진전」 주요 전시 작품



| 국지성 호우(대상 / 김주형 作) |



| 성산일출봉에 구름, 번개(금상 / 유수기 作)



| 용오름 현상(은상 / 김용천 作)



| 시련 속의 아름다운 할미꽃(은상 / 김영곤 作)